

예산 30억원이상 사찰 재정 공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기자회견... 7월부터 공개

직영·특별분담금·4등급 사찰
사보·인터넷 통해 재정 공개
신용카드 시스템 확대 추진
예결산 미제출 사찰 제재 조치
대중공사 논의 반영된 '성과'
"우선 실천 과제부터 제도화"

조계종이 오는 7월부터 직영·특별분담금·4등급(예산 30억원 이상)사찰에 대한 재정공개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재정 공개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 공개 추진 계획은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예산 30억 원 이상인 사찰 오는 7월부터 재정 공개 △예산 편성 지침 시달시 주요 지출항목 기준 마련 △문화재관리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마

련 △간소화된 재무 프로그램 개발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 제재 등이다.

조계종 사찰이 전혀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봉은사 등 대형 사찰부터 작은 포교당까지 자신의 살림살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어왔다. 예결산서를 통한 정보 공개의 경우 1년 결산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찰 81곳중 48곳(59%)이 공개하고 있다.

발표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직영 사찰 등에 대한 재정 공개이다. 대상 사찰은 약 50여 곳으로 조계종 전체 사찰 예산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조계종은 6월 중에 대상 사찰 회의를 갖고 재정 공개와 형식,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7월 중 재정 공개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게 된다. 또한 재정 공개 대상 사찰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직영과 특별분담금, 4등급 사찰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공개할 것"이라며 "사찰 신도를 중심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

결산 재정을 사보, 인터넷 홈페이지, 법회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리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조계종의 문화재관리료 입장료 징수 사찰은 총 64곳으로 현재 34%인 22곳만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그간 카드 결제 수수료와 결산 시 재가 맞지 않아 시스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총무행정 지도를 통해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자승 스님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6월 이내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종단의 종헌과 종법에는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예결산서를 통한 보고가 없어도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종법 개정을 통해 제재 조항 삽입해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한 제재하고 재정 투명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은 "중앙총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찰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을 오는 9월까지 종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개정안을 중앙총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주지연임 자격 부여하지 않고, 사찰 총무행정에 대한 불이익 등이 제재 방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본말사 예산 편성 지침시 부분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대상 사찰에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계종의 이 같은 예산 공개 방침은 '종단 혁신과 백년 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이하 100인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앞서 3차 100인 대중공사에서는 '사찰 재정 투명화'를 의제로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재정 규모가 큰 사찰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을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은바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광화문서 시작
불기2559년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4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행사는 협촌 최고(最古) 석탑인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점등식에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등 서울지역 주요사찰 신도들도 참석해 탑돌이를 진행했으며 연등회 서포터즈 소속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국내 대학생들이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플래시몹'도 벌였다. 노덕현 기자

韓불교, 네팔 대지진 참사 돕기 '한마음'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로 한국 불자들이에도 잘 알려진 네팔이 대지진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네팔의 아픈 눈물을 닦기 위해 한국 불교계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주요 종단들이 긴급 구호에 나섰다. 조계종은 4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네팔 대지진 참사 긴급구호단 파견을 결정했고 당일 오후 9시 네팔로 선발대를 급파했다. 우선적으로 2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예산도 편성했다.

선발대는 조계종 사회국장 각평 스님을 단장으로 조계종복지재단 공순주 과장, 서찬수 팀장, 아름다운동행 박성주 팀장이 참여했으며, 방콕을 경유해 28일 네팔 카트만두에 진입했다.

조계종봉사단 선발대는 현지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긴급재난구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4일 종단 최초로 네팔인 국제 포교사(라빈 법사)를 배출한 진각종도 네팔 JGO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총공생회, 더프라이스 등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도 27일 중 책임자를 파견하고 본격적으로 모금활동 및 구호활동에 나

섰다. 국제구호단체 지구총공생회(이사장 월주)는 네팔지부를 통해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피해주민 돕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자원활동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을 통해 식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3만 달러를 우선 구호 기금으로 전달했다.

국제구호단체 더프라이스(이사장 범등)도 4월 28일 긴급구호 선발대를 파견했다. 더프라이스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긴급구호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네팔과는 2010년 부터 커피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인연을 맺어왔다.

에도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이 4월 27일 지진 참사를 겪은 네팔에 불자들이 힘을 모아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위로 메시지 발표 전 네팔대사관을 통해 2000만원을 먼저 긴급구호기금으로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위로메시지를 통해 "네팔은 지구촌 성지이자 인류의 안식처로 네팔의 국민들과 마음의 안식을 위해 네팔을 찾는 순례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앞장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총 공생회는 4월 27일부터 네팔 카트만두에서 식수 지원에 나섰다. 현재 종단과 구호단체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
주요종단, 단체 에도문

조계종 구호 선발대 파견
공생회 등 현지 활동 시작
구호 모금·법회도 이어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에도문을 통해 "이번 참사의 조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지기 기대하며 우리 종단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호 정사는 "우리 종단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고통받는 네팔국민을 위하여 구호활동 및 모금활동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기원했다.

구호 기금 기부도 속속 담지하고 있다. 흥법문화재단(이사장 정우)과 통도사 구룡사, 여래사는 네팔 지진 긴급구호기금 1억 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4월 27일 전달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5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5월 정기법회를 지진으로 고통 받는 네팔 국민들을 위한 법회로 봉행하고 피해지역 돕기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한편, 이번 네팔 대지진으로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스암부나트 사원을 비롯해 히말라야의 보나나트 스투파 등이 포함됐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관련 기사 3·18면)

'감사 편지' 공모 수상자 발표

본지·수효사 효림원 공동 주최... 대상에 강희숙 씨

182명 응모... 9명 수상 영예
5월 11일 동산반야회관에서 시상식

현대불교신문사와 수효사 효림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 편지 공모 수상자가 발표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강희숙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이무성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소영 씨와 한주영 씨가, 입선에는 윤정란·신지용·정재인·최혜경·강태정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25일까지 한달여 간 진행된 공모에서 182명이 부처님, 스님, 스승, 부모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응모했다.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우수상과 입선 수상자에게도 소정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동산반야회 강당에서 진행된다.

본선 심사를 맡은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과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시인)은 "감사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생각 못했던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 삶이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마침 가정의 달이니 부모님과 스승에게 얹어 한 장이라도 감사 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심사 소감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세계평화 간화선 무차대법회

증명 :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진제대선사
초대합니다. 善男善女들이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두 다 모이자!

옛 부처님이 나기 전에 누가 우주의 주인인가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체성은 평안한지라
온 세계가 한 집이요 정이 있고 정이 없는 모든 만물이 한 몸이로다.

이시대에 재현된 부처님의 영산회상
2015년 5월 16일(토)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051) 746-2256
www.seon.or.kr
부산 해운대구 우동 2로 40-6